"함께 즐기는 영화제다운 영화제로"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 오프라인으로 성황리 개최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준동)가 지난달 31일 개최 및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오는 28일 개막을 앞둔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올해 축제와 방역의 공존을 목표로 삼고 오프라인 행사 전면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오프라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진행한 개최 및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은 전주, 서울에서 같은 날 두 번에 걸쳐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승수 조직위원장, 이준동 집행위원장, 문석, 문성경, 전진수 프로그래머가 참석했으며 서울 기자회견장에는 올해의 프로그래머인 연상호 감독 또한 자리했다. 개회사를 맡은 김승수 조직위원장은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의 오프라인 개최 의지를 비치며, "전주국제영화제는 준비하는 사람과 참여하는 시민이 오랫동안 한마음, 한 방향으로 향해온 영화제다. 이런 팀워크가 가능한 영화제가 흔치 않다"고 자부심을 내비쳤다. 이후 "올해는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 보고, 함께 즐기는 영화제다운 영화제로 찾아뵙겠다"고 인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이준동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올해 영화제의 특징, 변화된 점 등을 소개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2020년 베를린영화제가 치러진 뒤에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시작됐다. 그 이후 처음 열린 영화제가 전주국제영화제였다"라는 말을 첫머리로 삼았다. 이어 "참조할 만한 것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극장을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올해는 영화제가 가진 축제성의 완전한 회복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개·폐막작을 포함한 전체 상영작은 문석, 문성경, 전진수 프로그래머가 소개했다. 개막작은 코고나다(Kogonada) 감독의 〈애프터 양 After Yang〉으로 선정됐다. 〈애프터 양 After Yang〉은 미래에 살고 있는 제이크 가족이 중국에서 입양한 딸 미카를 위해 아시아계 청년의 모습을 한 안드로이드 '양'과 함께 사는 이야기다.

폐막작은 에리크 그라벨(Eric GRAVEL) 감독의 〈풀타임 Full Time〉으로,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 근로자 쥘리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어 경쟁 부문,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시네필 전주, 프론트 라인, 세르히 로즈니차 감독의 작품들, 밀란 쿤데라 미니 섹션 등 여러 부문의 소개와 다양한 부대 행사도 소개됐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준비한 특별전 소식도 다뤘다. 기획을 담당한 문석 프로그래머는 "이창동 감독의 특별전 〈이창동: 아이러니의 예술〉은 감독의 예술세계의 근원을 찾아가는 시간여행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고, 〈충무로 전설의 명가 태흥영화사〉 특별전 소개에 앞서 지난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태원 대표를 추모하며, "한국영화사에 남긴 태흥영화사의 발자취를 돌아보기 위해 기획했다"고 전했다.

서울 기자회견에는 올해의 프로그래머로 활약할 연상호 감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J 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 부문은 전주국제영화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영화인을 프로그래머로 선정해 영화적 관점과 취향에 맞는 영화를 선택, 프로그래밍하는 섹션으로 지난해 처음 선보였다.

올해의 프로그래머로 선정된 연상호 감독은 "내가 좋아하는 작품으로 프로그래밍하여 극장에서 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J 스페셜로 만나볼 수 있는 상영작은 연상호 감독의 〈돼지의 왕〉, 〈부산행〉, 데이비드 린치의 〈블루 벨벳〉, 구로사와 기요시 〈큐어〉, 가타야마 신조 〈실종〉이다.

이번 개최 및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이 '방역과 축제의 공존'의 신호탄으로 작용해, 오는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영화제다운 영화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는 56개국에서 217편의 영화를 초청했으며 해외 작품 123편, 국내 작품 94편으로 구성됐다. 총 143편의 장편과 74편의 단편을 상영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해외영화 69편에 국내영화 43편을 더해 112편의 작품은 온피프엔(onfilm.com)을 통해 온라인 상영의 형태로도 만나볼 수 있다.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전체 상영작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와 왓챠피디아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열흘간 전주 영화의거리 일대에서 개최된다. /김윤상 기자

자개문형글자 심홍재 작가 개인전

전주 기린미술관 개관 5주년 기념 5월 29일까지 초대전 개최

전주 기린미술관(관장 이현옥)에서는 오는 5월 29일까지 자개문형글자 심홍재 작가를 초대해 개관5주년 기념 초대전을 갖는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심홍재 작가는 자개로 글자를 문형화하여 캔버스위에서 행위예술을 펼친다. 작가의 획과 자개가 만나 그 기원의 상이 구성된다. 작품을 바라보며 작가와의 대화는 바다로 까지 거슬러 간다.

바닷속 조개가 뭍으로 올라와 자개를 만드는 장인의 손으로부터 새겨지는 과정 그리고 누군가의 쓰임이 다할 때까지 주름질, 모조법, 끊음질, 타발법 등을 통해 나전칠기의 쓰임이 완성된다.

자개는 장식을 위한 무늬를 새겨 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이가 이를 쓸 대상의 행복과 번영, 평화와 안민을 기원하는 마음을 새겨 넣는 작업이다.

근대란 결국 옛것을 밀어내고 새것이 주류로 부상하는 현상을 이름한다. 심홍재 작가는 이 현상을 주목한다. 버려진 자개 장롱에서 자개 부분을 도려내 글자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조형 언어를 펼쳐나간다.

심 작가는 강렬한 빨강색 바탕위에 낡아서 버린 자개 장롱의 무늬부분을 오려낸 후 이를 자신의 고유한 조형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작가의 특유의 야생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매우 까다로운 작업인데 바탕색과 자개가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글자 부분의 색조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자개를 사용한 작가들의 작업은 더러 눈에 띄지만 기성 오브제를 사용한 심홍재의 작업은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심홍재 작가는 '예전 한자 추상의 획 작업에서 요즘은 한글 추상과 인체 추상의 획 작업으로 바뀌었는데 이번 전시의 메시지는 평화와 안민에 있다'고 이번 전시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획작업은 폐 자개농이라는 물성의 직접적인 재해석을 하여 오려 따내는 작업을 통하여 고정 관념적 틀을 뛰어넘는 온고이지신적 작품으로 탄생시킨다.

1987년 작가의 길에 들어서서 36년여를 작품을 통한 수행을 하고 있다. 이번이 22회 개인전이고 그동안 여러번 아트페어와 행위예술제에도 참가하였다. 심작가는 한국행위미술협회 회장과 전주 국제행위예술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재훈 기자

文 대통령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여성 독자에 인기

교보문고 판매량 집계 결과 80% 여성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요 연설문집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진열되어 있다. 이 도서는 문 대통령이 재임한 5년 동안의 주요 연설을 대통령 비서실이 엄선해 엮은 책으로 주요 행사와 순방에서 대통령이 말한 국정철학이 담겨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집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열풍 뒤에 여성 독자들이 있다. 지난달 30일 출간된 문 대통령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출간 이틀 만에 예스24 3월 5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종합 5위에 오르는 등 서점가에서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교보문고가 지난 29~30일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전체 구매자 중 80.8%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여성이 39.8%, 40대 여성이 21.8%를 차지하며 3040 여성이 구매자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문 대통령 저서에 대한 여성 독자들의 호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출간된 '문재인의 운명' 특별판은 당시 2030 여성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당시 구매자 중 20~30대 여성 구매 비율은 66%에 이르렀고 전체 구매자 중 77.5%가 여성이었다.

한편 이번 연설집은 출간과 동시에 초판 6000부가 전부 판매되며 서점가에서 일시 품절 상태다. 출판사 관계자는 "2, 3쇄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12일부터는 다시 책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국립민속국악원, 새봄맞이 광한루원 음악회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남원 광한루원에서 우리음악을 들을 수 있는 광한루원 음악회를 개최한다.

광한루원 음악회는 4월~5월, 9월~10월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후 2시 남원 광한루원 내 완월정에서의 상설공연으로, 가족들과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에 남원을 찾은 관광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기대하고 있으며 총 28회의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은 꽹과리, 장구, 북 징 타악기의 조화를 이루는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한복의 맵시에 아름다운 몸짓을 표현한 〈민속무용〉, 민속음악에 꽃이라 불리우는 〈기악산조〉, 전라도 지역의 대표곡인 〈남원산성〉,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등의 민요로 꾸며진다.

특히,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완월정 정자에서 국악을 들으며, 광한루원 전경도 감상할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될 것이며,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로 선착순 30명으로 제한하고 사람간 1m 거리두기로 좌석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남원=김기두 기자